

헝가리(Republic of Hungary)

2004. 2

국별조사실

面 積	9.3만 km ²	貨幣單位	Forint(Ft)
人口(2003)	10.1백만 명	환율(2003)	Ft 224/USD
GDP(2003)	825억 달러	會計年度	1. 1~12. 31
1人當GDP(2003)	8,350달러		

1.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단위 :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e
경	제	4.2	5.2	3.8	3.3	2.7
성	장					
률						
재	정	-3.7	-3.4	-3.0	-9.3	-4.5
수	지/G					
지	D					
를	P					
소	비	10.0	9.8	9.2	5.3	4.6
자	물					
가	가					
상	상					
승	승					
률	률					

자 료 : EIU Country Report

무역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환

- 동국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동구권에서는 가장 이른 1980년대 후반 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였고, 汎정파적 합의에 의해 EU 가입 을 추진하면서 양호한 경제개혁 및 체제전환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1988년 GDP의 약 42%를 차지하였던 제조업 비중은 체제전환이 진행되 면서 23.5%로 낮아졌으며 주로 EU 기업들의 부품생산 및 조립생산 기 지의 역할을 행하고 있음.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농업부문은 그 비중 (2001년 GDP의 4.3%)과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음.
- 동구권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구한 결과 동국의 수출과 수입 은 각각 GDP의 65%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EU와의 교역 및 투자 를 통해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은 둔화 전망

- 2000년에 EU에 대한 수출호조에 힘입어 체제전환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1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對EU 수출도 증가세가 둔화되어 성장률은 3%대를 유지하였으며 2003년은 3.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물가 상승률은 둔화 기조를 유지

- 1995년 연평균 28.2%를 기록했던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인 인플레이 억제 노력으로 1999년 10%를 기록한 데 이어 2000년에는 체제전환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였음.
- 2003년에는 4.6%라는 사상 최저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이 같은 물가안정에는 포린트貨의 강세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됨. 2000년 5월 환율 변동폭이 상하 15%로 대폭 확대된 이후 Forint貨의 실질가치가 지속적으로 유로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서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선거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확대

- 체제전환이 시작된 이후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성장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면서 물가불안 및 재정불균형 확대가 동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자리잡아 왔음. 특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집권당은 유권자들의 의식한 방만한 재정지출 확대를 반복해 왔음.
- 2002년 4월 총선거에서 기존 집권연정인 Fidesz와 민주포럼(HDF)가 지지율 제고를 위해 각종 개발정책을 내세우며 재정지출을 확대하였고, 새로이 집권한 중도좌파 연정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100일 계획'이라는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추진하여 2002년의 재정수지 적자는 9.3%로 전년도의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동국이 2004년 5월의 EU 가입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유로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3%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양대 사회보장제도의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정부와 중앙은행은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감소, 물

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중임.

나. 국제경제

단위: 억 달러,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e
경 상 수 지	-25	-29	-18	-26	-48
경 상 수 지/G D P	-4.4	-2.9	-2.1	-4.0	-5.6
상 품 수 지	-21	-29	-22	-21	-38
수 출	257	289	311	348	409
수 입	278	318	333	369	447
외 환 보 유 액	110	112	107	103	122
총 외 채 잔 액	299	295	303	326	419
총 외 채 잔 액/G D P	64.3	66.8	60.1	60.4	52.0
D. S. R.	23.0	21.9	34.3	17.8	15.1
F D I 유 입 액	20	17	26	9	-3

자 료 : EIU Country Report

□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

- 동국은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에 나선 결과 교역규모가 GDP의 130%에 이르고 있으며, 전자제품을 비롯한 기계·장비가 주요 수출분야로 자리잡고 있음.
- 반제품 가공을 통한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으로 원·부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상품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2003년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적자 확대 및 금융 서비스와 투자소득수지 적자 증가로 인하여 4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민영화 사업의 종료로 FDI는 저조

- 성공적인 구조개혁과 금융, 에너지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과감한 민영화 추진으로 중·동구 지역에서 FDI 유입이 가장 먼저 활기를 띠었으며, 2001년에는 2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그후 급감하여 2003년에는 3

억 달러 반출을 기록하였음.

- 이는 주요 대형기업의 민영화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헝가리의 강점이었던 정치적 안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임금상승으로 인한 투자유치 경쟁력 상실 등의 요인이 겹쳐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외채는 관리가능 수준

- 체제전환 시점에서 동국은 중·동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외채 부담을 안고 출발했으며, 2003년의 총외채 규모는 419억 달러로 증가 추세이나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GDP 대비 외채 규모는 하락 추세임. 외채규모가 GDP의 52%로 아직 과중한 편이나 동국은 채무불이행 및 리스케줄링의 기록이 없으며 적극적인 외채상환 노력으로 D.S.R.도 2003년도에는 15%까지 크게 하락하였음.

2. 정치·사회동향

□ 체제전환 이후 정치적 안정 유지

-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적 절차가 유지되고 중·동구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다는 점임. 여·야의 격렬한 대립이 있기도 했으나, 정당간 이합집산도 비교적 적었으며 모든 정부가 중도하차 없이 임기를 마쳤음.

□ 사회당, 근소한 차이로 재집권 성공

- 2002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는 청년민주연합(Fidesz-HCP)이 연임할 것 이란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사회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음. 그러나 자유민주연합(AFD)과 연정을 구성한 사회당 정부는 386석의 의석 중 51%인 198석을 확보한 데 그침으로써 향후 국정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전 정권에 의한 방만한 재정운영에 이어 사회당 정부도 선거공약에 따른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2003년도 재정수지는 4.5% 적자가

예상됨.

□ 기타 사회불안 요인

- 경제발전과 함께 빈부격차가 확대됨에 따른 계층간 갈등 요인은 있으나,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은 별로 없음.

□ EU 가입 결정

- 1996년 OECD 가입과 1999년 NATO 가입으로 이미 서방세계의 일원이 되었으며, 2004년 5월 EU 가입이 결정되었음. EU는 동국을 비롯한 중·동구 8개국에 대해 2004년까지 일괄적으로 가입을 승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3.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2등급(2002. 1) → 2등급(2004. 1)
- ICRG : 36/140('02. 8) → 44/140('03. 12)
- I. I : 30/151('02. 3) → 31/172('03. 9)
- Euromoney : 36/185('02. 3) → 35/185('03. 9)

□ 국제금융시장의 평가

- 현재까지 채무연체나 리스케줄링 사례 없음.

- Moody's : A1(2003. 3) → A1(2004. 2)
- S&P : A-(2003. 3) → A-(2004. 2)
- Fitch IBCA : A-(2004. 2)

- 동국의 외채규모가 다소 과중하나 양호한 국가신인도를 바탕으로 한 해

외차입능력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4. 요약 및 전망

□ 국내 경제 및 정치 환경 다소 불안

-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기의 회복여부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의 변동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권정권교체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있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내로 끌어내리는 것은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여 유로 통화 도입은 늦춰질 전망이다.
- 또한, 사회당이 근소한 차이로 4년 만에 재집권하면서, 야당이 된 청년민주연합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양호한 대외신인도 유지

- 동국은 체제전환 경제권에서 경제개혁 성과가 양호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EU 가입 결정으로 우수한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다소간 정치·경제상 우려요인은 있으나, 동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채무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국교수립 : 1989년 2월 1일(북한과는 1948년 11월 11일)
- 주요협정 : 투자보장협정,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과학기술협정('89), 항공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상사중재협정('90), 사증면제협정('91)

□ 교역현황

단위 : 천 달러

	2000	2001	2002	2003.11.	주요 품목
수 출	180,063	228,230	363,524	549,366	전자제품, 수송기계, 석유화학
수 입	107,102	99,249	105,313	79,006	전자제품, 축산물, 수송기계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해외직접투자현황(2003년 12월말 현재) : 18건, 126,106천 달러